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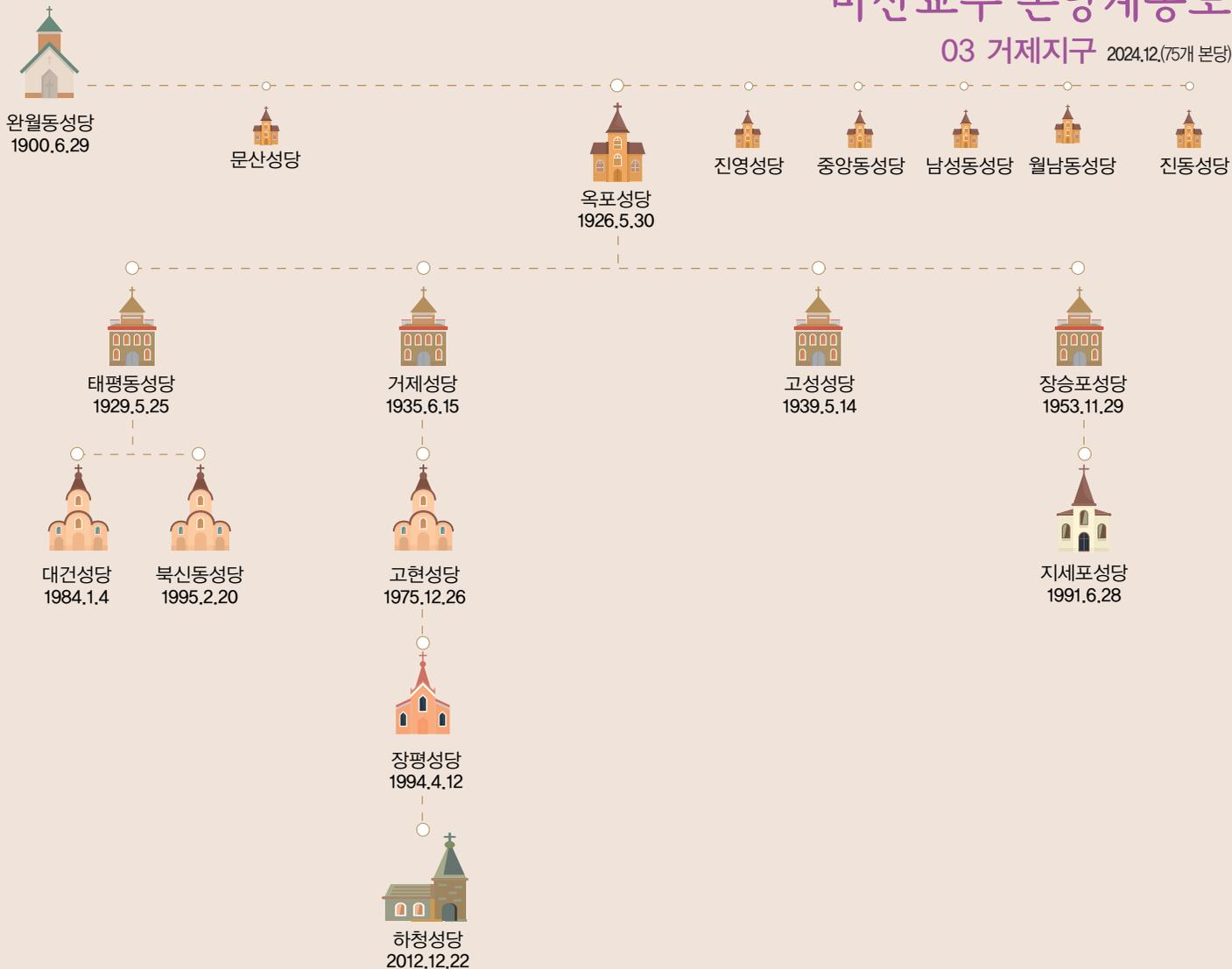


# 가톨릭 마산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2024년 12월 15일  
제2648호

## 마산교구 본당계통도

03 거제지구 2024.12.(75개 본당)



##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스바 3,14-18ㄱ
-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 독 서 필리 4,4-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복 음 루카 3,10-18
- 영 성 체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훈 태대오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  
자선은 우선 주변을  
보는데서 시작됩니다.  
‘너’의 결핍이 보일 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내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군중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대답합니다.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더 주저하게 됩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내 마음자리가 세상 것에 있고 세상 걱정애 있다면 세상 것을 모으고 지키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 전전공공, 좌불안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자리에는 이웃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그가 헐벗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변변한 것이 없어 속상하고, 입맛에 맞는 것이 없어 불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불평, 불만은 한덩어리로 따라다니며 내 삶을 갉아 먹고 하느님에게서 나를 떼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나를 떼어 놓고 맙니다. 삶은 풍요로운 선물이 아니라 지쳐가는 전쟁터처럼 변해 갑니다. 그 자리에서 불안은 무럭무럭 자라나 나를 방황하고 길 잃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찾아간 군중들도 메마른 삶에 지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물어보듯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라는 고립에서 벗어나 ‘하느님’, ‘이웃’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을 보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한국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변을 보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내가 당연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선주일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도록 초대하는 날입니다. 자선은 우선 주변을 보는데서 시작됩니다. ‘너’의 결핍이 보일 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회개란 세상 것에 대한 애착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애착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 놓는 행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가는 대림 제3주일입니다.



#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 찬미 예수님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40년째 되는 '자선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특히, 사순절 동안 세 가지를 훈련합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단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재의 수요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태 6,3). “너는 기도 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6,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6,16).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취업과 실업,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나쁠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나쁠 때 고독해집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싶은 이웃도 있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은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난 체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로마 2,8).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잠언 8,13).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베푸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40,46).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아마도 내가 거만하거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 것을 기꺼이 그들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힘, 더 나아가 나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큰 시련을 겪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경사를 맞이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선 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재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9,13).

희생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희생은 자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자신에게 소중한 것마저 내어 주는 자선 또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 소련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희생”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을 위하여, 혹은 어떤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에게서 최소한 경미한 정도로도 느끼지 않는 한, 그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중단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다”(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이 살 만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피땀, 희생이 그 밑받침에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하고 불안하다면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은 원죄를 씻어 냅니다. 자선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베푸는 이기적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2).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절대적 희망이십니다. 코로나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희망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희망이신 하느님과 함께,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작은 희망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눕시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2024년 12월 15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 규 만 주교



# 아내에의 고별시 몇 편

강희근 요셉 시인/ 가톨릭문인회

지난 4월 10일 아내를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신앙에 닿는 시로서만 심회를 적어왔습니다. 100일 미사를 드리는 동안의 그 과정에서 씌어진 시 몇 편 줄여 올려 이로써 구비구비 슬픈 표정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 그대 어디 있는가

“그대 어디 있는가, 하늘로 올라/  
예수님 성모님 계시는 곳에 있으리라/  
기도하던 대로 원하던 자리 그 곳에 있으리라//  
그러나 마지막 아픔의 골짜기를 거쳐 갔으므로/  
남아 있는 자들은/  
아픔의 벼랑이나 굽이치는 물굽이를 벗어났는가/  
걱정 중에 걱정으로 있는데//

영결미사를 주례해 주신 루치오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헬레나 선생은 유택이거나 묘소이거나/  
벼랑 같은/  
비바람 치는 곳에 있지 않다고, 우리들 따뜻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아직 병상 곁에서 1년  
여 보내면서/ 여태 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시간대로 챙기고 있는 듯 아닌 듯/  
그 약봉지 수북이 남아 있어서……”

## 거실, 아내와의 보금자리

“아내가 가고/ 그 인생도 갔다//  
상봉한주 47평형 아파트/  
아내가 원해서 입주해온 지 32년/  
못 하나 만질 줄 모르는 남편과 함께/  
리모델링까지 하고/  
교수이자 시인인 그 이름이 호주였다//  
빈 자리가 썰렁하다/ TV가 없으면 적막강산이다//

오늘은 스승의 날 하루 전/  
대학에서 명예교수의 날이라며 오전 11시/  
컨벤션센터로 나오라 한다//  
나가볼까 나가서 그리운 얼굴들에/  
그리운 한때 만들고 올라/  
그리움은 아내 한 사람으로 가득하고 저녁이면/  
아내를 위한 백일미사가 기다린다//  
가슴이 있는가 설레기 시작한다”

## 김,금,자 원생

“원무과 수납계에서/ 환자분 성함 화면에 적어 주세요/  
네, 김 금 자 또박또박 필기체로 쓴다//  
은행 창구에서 손님 성함 불러 주세요/  
네 김, 금, 자 또록또록 말한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보호자로서 듣는 나는/  
국어선생이 국어를 읽듯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회 교우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흑판에 김 금 자 헬레나라고 쓴다//

제7강 '사랑의 공동체' 제목을 쓸 때도 공 동 체/  
세 글자에 이름 이상으로 힘을 주어 쓴다/  
이때 수강자들도 국어선생이 국어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는 때때로 나랏말씀이 등국과는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할 새/  
이를 불쌍히 여겨 내 새로이 스물여덟 자를 맹그노니/  
사람마다 해여 편하게 쓰게 함이라/  
대왕의 뜻이 이렇다 함을 자주 뇌이며 /  
대왕이 이때는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아직도 몇 편은 더 소개하고 싶지만 마지막 고통이 밀려올 때도 선종, 선종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그 씨늘한 순간이 떠올라 글판을 접을까 합니다.

# 기도. - 희년을 준비하고, 살아내며, 열매 맺도록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에,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Spes non confundit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2025년 희년을 위한 2년의 준비 여정으로써, 2023년은 ‘공의회 가르침의 재발견’, 2024년은 ‘기도’를 위한 해로 보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력으로는 기도의 해인 2024년의 끝을 보내며, 교회력으로는 희년인 2025년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년 칙서 18항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라는 바오로 사도의 격려는, 희망의 희년을 위한 준비 뿐 아니라 그 희년을 살아내며 열매 맺도록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필수적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이런 희년 취지에 맞춰,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복음화부서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집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를 펴냈습니다. 86쪽 분량의 이 자료집 내용 중,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 주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대화입니다.”

사람들의 대화처럼 말을 나누라는 것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느님을 대면하며, 하느님의 고유한 빛이 현존하는 자리에 자신을 온전히 열고 항구히 머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숨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 “개인의 삶, 교회의 삶, 그리고 세속의 삶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 절대적 필요성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 애길 많이 합니다. ‘기도 합시다’,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기도하나요?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교회가 위기라면, 그리고 세상이 어지럽다면, 그 ‘무엇’과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실히 미사 참례하고, 꾸준히 묵주를 돌리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요.

“교회 안의 모든 것의 기원은 기도이며, 모든 것은 기도 덕분에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공동의 열쇠로 그 문(하느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 “기도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길을 밝혀 주는 빛, 성문으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순례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방향’을 줍니다. 골리앗은 못 가졌던, 다윗은 가졌던 그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을 바꾸는데도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 나’가 되게 합니다. 내가 변모해야, 세상이 변모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 문은 나의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견진성사**

일시: 12월 22일(주일)  
장소: 태국 파타야

**신학생 방학인사**

일시: 12월 16일(월)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삼위일체수도회 축복식**

일시: 12월 17일(화) 14:00  
장소: 태봉 삼위일체수도회 본원

**교구/본당**

**신학생 교구장 방학인사**

일시: 12월 16일(월)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학생 동계연수**

일시: 12월 16일(월)~18일(수)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평신도 신앙대학 제29기 모집**

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만 65세 이하의 본  
당주임 사제 추천을 받은 자  
모집: 선착순 40명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기간: 2년과정(연10회) 1박2일 진행  
등록비: 연 620,000원(교육관 2인실 숙박비)  
접수: 입학원서(본당사무실 비치) 사목국 제출  
(우편 또는 방문)  
마감: 12월 31일(화)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2월 18일(수)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2월 21일(토)~22일(주일)/2월 14일(금)~15일(토)  
3박4일: 2월 26일(수)~3월 1일(토)/3월 27(목)~30일(주일)  
4박5일: 2.17(월)~21(금)(성직자/일반)  
8박9일: 12월 26일(목)~1월 3일(금)/1월 6일(월)~14일(화)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501차 부산교구성령묵상회(일반)**

일시: 12월 27일(금) 18:00~29일(주일) 17:30  
장소: 양산 영성의집  
문의: 055-382-9465 /회비: 18만원

**502차 부산교구성령묵상회 청소년(중고생)**

일시: 25년 1월 3일(금) 16:00~5일(주일) 17:30  
장소: 양산 영성의집  
문의: 055-382-9465 /회비: 15만원

**청주 초정성령회관 2박3일 송년대피정**

일시: 12월 27일(금) 20:00~29일(주일) 14:00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버스: 조치원 역 18:20분 출발, 청주고속버스터  
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분 출발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한라산포함: 1월 11~13일, 1월 16~18일, 1월 20~22일, 1월  
24~26일, 2월 1~3일, 2월 7~9일, 2월 15~17일, 2월 21~23일  
추지도포함: 3월 13~16일, 3월 23~26일, 4월 5~8일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상담심리전공)  
원서접수: 24년 12월 31일(화)~25년 1월 3일(금)  
문의: 043-270-0100, 0119

**2025학년도 노비따스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모집**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음악 중점 교육과정 운영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novitas-s.goegp.kr)참조

**구 인 광 고**

**진동가르멜수도원 피정의 집 주방근무자**

숙식가능, 급여 200만원  
구비서류: 이력서 1부  
문의: 055-271-4241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2025-2026년 하청본당 사목협의회**

회 장	강문호 (스테파노)
부회장	김태우 (가브리엘)
총 무	김명희 (베로니카)
재경분과	박진형 (요한 마리아비안네)
전례분과	김명희 (젬마)
복음화분과	배숙자 (루시아)
구역분과	서월순 (카타리나)
청소년분과	문정현 (실비아)
시설분과	송민섭 (베네딕토)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2월 16일(월) 19:00	남성동성당	바로로 (성경 속 인물세미나)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전 전국 성령담당)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욕지도 30년 전복죽** 특허

9만원  
5만 5천원

12팩(6인용)/중량 300g±5%  
/ 전복, 햅참쌀, 쌀소라 및 재료  
100%국내산 / 전국무로택배

김금자 엘리사벳  
**010.3571.5086** 동영시 옥재면  
사촌야랫길 112 헤너촌

최봉원 야고보 신부와 함께하는  
**대만 문화탐방 및 성지순례**

25년 1월 9일(목) 출발(4박5일)  
1인 155만원(병동가능, 선착순 25명)  
주관: 나라여행사  
문의: 설민경 루치아 010.9039.5667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상 무연고 처리  
수목장 평양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학생남 18길 2, 1층(약성동)  
**김 중 운(클레멘스)**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경대약국**

·친절한 복약지도  
·영양 복약상담

진주 외 지역은  
전화상담도 가능

경상대병원 처방약은  
**경대약국에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8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주차타워 맞은편)  
**055.755.2020**  
하종인 율리아노, 도승현 엘리사벳



## 경화동본당 “올리고~ 당근 마켓” 장터

경화동본당(주임: 주효상 알렉산델 신부) 중고등부 학생회(회장: 최유나 유스티나)는 제59회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보호와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으로 아나바다 “올리고~ 당근 마켓” 장터를 열었다. 경화 공동체 각 가정에서는 새것이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 아낌없이 기증에 동참하였고, 사목회와 자모회의 지지를 받아 11월 24일 그리스도와왕 대축일 낮 미사 후 성당 마당과 강당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기증받은 물품들을 교환하고 판매하며 함께 지구 생태

환경 보존에 동참하고 본당의 날도 축하하는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2024년 전례와 꽃 예술학교 졸업작품 및 수료작품 전시회



2024년 11월 30일(토)~12월 1일(주일) 양일간 교구청에서는 전례와 꽃 예술학교(담당: 성소국장 김형렬 요셉 신부) 학생들의 졸업작품과 수료작품 전시회가 있었다. 15기 지도자 과정 6명, 17기 봉사자 과정 11명, 18기 기초 과정 12명이 1년 가까이 공부하며 준비했던 결과물을 전시했고, 관심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관람으로 기쁘게 마무리했다.

## 내가 기억하는 사제 신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구 사무처에서는 교구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보에 “내가 기억하는 사제”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교구 선종 신부님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돌아가신 신부님들과의 특별한 교류와 개인적인 기억을 간직한 신자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A4 용지 12pt 사이즈 2/3 정도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소속 본당/성명/세례명/연락처

보내실 곳: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 담당  
(메일) media2@cathms.or.kr



#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십자가 상 그리스도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오늘은 십자가의 요한(Juan de la Cruz, 1542-1591) 성인께서 직접 그리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십자가 상 그리스도 그림에 대한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독자분들께서 이 지면을 통해 보고 계실 그림은 한 가지 이색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묘사하는 그림은 대개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요한 성인께서는 그림을 통해 십자가를 위에서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득 성인께서 관상하신 십자가 상 주님 앞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선을 이해해보고자 올해 요한 성인의 축일(12월 14일)에 주어지는 전례력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집회 48,1-4.9-11; 마태 17,10-13)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그는 메시아 도래의 전령입니다. 강생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고대한다는 대림 시기의 의미에도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전례력이 엘리야와 십자가의 성 요한을 연결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상응점이 있을까요?

집회서의 말씀은 엘리야를 불(火)의 예언자로 소개합니다. 그에 대한 서사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1열왕 17-19장에 따르면, 엘리야의 출현(가뭄-땅을 마르게 하는 불) 및 예언직 수행(바알의 예언자들과의 대결)에 불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하자면, 불은 엘리야의 예언자적 신원에 근본적인 힘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직접 대면해주십니다. 그 대면은 불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히브리어 원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모든 것이 먼지와 재가 될 만큼 다 바스라지고 난 뒤에 들리는 소리’를 타고 이루어집니다.(1열왕 19,11-13 참조) 이로써 예언직을 수행하며 한껏 타오른 불의 예언자는 불이 사그라진 뒤에 남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허무이자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바스라진 재가 되었기에 바람에 실려 하느님께로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2열왕 2,1 참조)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엘리야의 도정을 뒤따라셨습니다. 성인의 영적 동반자였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에 따르면, 그는 “한평생 줄곧 성령이신 사랑의 불로 불붙어 끊임없이 타오르는 통나무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인께서는 태양보다 밝으신 빛 자체이신 분을 바라보다가 소경이 되셨습니다. 성인의 표현대로, ‘어두운 밤’에 들어서시게 됩니다. 어두운 밤은 참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 심지어 자신마저도 볼 수 없게 지워버리는 밤입니다.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어두운 밤의 심연 가운데 놓임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느님의 정화의 불에 놓임입니다. 참 하느님 외의 모든 것이 재가 됩니다. 이때 성인은 엘리야 예언자께서 경험하신 구원 역사의 역설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에서 성인의 영혼은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관상합니다.

이러한 성인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림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림은 오직 십자가 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아버지 하느님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지막 숨, 성령께 속해 있는 성인의 영혼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마치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먼지와 재가 된 성인의 영혼과 일치를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인께서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부 하느님께로 향하시는 성령 하느님의 시선을 공유 받으실 수 있었겠지요.

두 분 신앙 선조들의 삶에 범부(凡夫) 신자의 삶을 감히 비교함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을 두 선조들께서 친구로써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워 놓은 하느님에 대한 시선이 바스라지기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현실에 속하는 먼지와 재가 우리이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sc.sogang.ac.kr/bbs/bbsview.do?bbsid=3281&pkid=35570&wsllID=ohseil&currentPage=1&searchValue=&searchField=코너> |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달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님께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